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산업안전과장 이 병 재

천안지청은 꾸준히 관내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많은 활동이 보도 자료로 쏟아져 나오는데 보도자료가 가장 많은 지청 중 하나 일 것이다. 천안지청의 보도자료의 모두를 손수 만들어 배포하는 이병재 산업안전과장을 만났다. 오늘도 11월 2일 “충남북부지역 산업재해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보도자료 작성에 한창인 이병재 산업안전과장의 안전세계로 들어가 본다.



와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제조, 건설분야에서의 중간계층 안전관리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교육장을 마련하고 매월 1회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체험, 각종 안전시설물의 올바른 설치방법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밀집지역 등에서는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캠페인 전개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공단, 안전관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복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시킵니다.

금년 우리 지청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먼저, 작년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취약한 분야 7개를 선정하여 업종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범운영, 외국인 및 소규모사업장 집중관리, 120억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현장 집중관리, 제조업의 사망재해를 감소운동, 고소음 사업장 관리 및 근골격계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청에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지청에서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써, 제조업 사업주와 건설현장소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간담회

우리나라 산업안전은 다양한 변화를 해왔고, 현재 자율안전체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율안전체제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자율안전체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작업환경 등을 기업주나 책임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기존의 지도 감독 일변도에서 사업장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그런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청에서도 금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율적으로 잘 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성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산업안전은 발전해 왔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에서의 안전은 초보단계입니다. 중소기업에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기업군의 사업장에는 안전문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장인데, 사업장 여건상 경제적 문제와 사업주의 의지와 관심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장과 근로자를 가정과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기업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기업주라면 클린사업이나 산재용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고, 저비용의 안전활동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올 산업재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천안지청의 작년 재해율은 0.70%로 전국 평균 0.77%에 비해서 10%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최소 4.3% 감소한 0.67% 재해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잠정집계치로는 목표치보다 많은 감소율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 말까지 재해율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산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재율이 3배 이상 높은 제조분야에서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120억 미만 중소기업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11월 한달을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의 달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 “충남북부지역 안전보건인 산재예방 결의대

회”도 안전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가 함께한 예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이끌어 가는 기업주, 안전인, 그리고 근로자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 경영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을 자기 집처럼, 근로자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과 관심으로 사업장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전인은 산업현장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나지 않겠지 하는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은 대기업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자기 자신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장에서의 무재해 무사고는 어느 누구 한사람만이 잘해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경영주와 안전인 그리고 근로자가 하나가 되어 자기 위치에서 안전활동에 참여한다면 안전문화는 그리 멀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최종덕 기자〉